

전일동향

전일대비 17.50원 상승한 1,489.90원에 마감

12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60원 상승한 1,475.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꾸준한 주식 투매와 강달러 흐름에 상승 압력 받으며 전일대비 17.50원 상승한 1,489.9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5.2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5.08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5.00	1490.00	1474.80	1489.90	1484.30
엔화	936.76	947.27	936.28	945.08	-	
유로화	1734.90	1752.73	1733.75	1748.7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7	-3.47	-7.73
결제환율(수입)		-0.39	-2.09	-5.49	-11.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CPI 예상치 상회...1,49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89.90) 대비 3.50원 상승한 1,492.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CPI 예상치 상회에 따른 강달러 및 국내 증시 외인 매도세에 상승 전망한다. 간밤 발표된 미 4월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8%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3.7%)를 상회했고, 이에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확산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CPI 결과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를 경계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어 연준의 금리인하 여력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리 동결 전망 강화되며 금일 달러 강세 압력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제까지 4거래일간 하루 평균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대규모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한 원화 가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금일 환율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농후하다.

다만, AI투자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어 이는 원화의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수출업체 고점 매도 물량은 상승 폭을 제한해줄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87.75 ~ 1497.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6089.7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50원 ↑
	■ 美 다우지수 : 49760.56, +56.09p(+0.1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03.8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12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